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6호 [루계 제25795호] 주제 106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  
학원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 사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  
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리일환동지,  
김용수동지, 김여정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만경대혁명학원 원장인 륙군  
소장 오통택동지를 비롯한  
학원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신임을 표명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  
에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아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고수하고 빛내이며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결실  
하고 미더운 핵심골간들을  
수많이 키워냄으로써 혁명  
위업계승의 력사에 자랑  
스러운 행로를 아로새긴대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  
며 성장한 학원의 출업생들  
이 반제반미대결전파 사회주  
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기동, 핵심풀간으로  
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골간들, 핵심부대를 키우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원아들을 다방  
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루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만경대 혁명학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전투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어 친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끊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  
면서 당의 숭고한 뜻을 충청다해 받들어  
주체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불리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생들은 몸소 원아들의 천아버지가 되시여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으로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끊끗이 이어나갈 계승자들로 자라나

도록 걸음걸음을 순잡아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북

칠것 떠쳐울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  
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온 나라의 축복속에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한 만경대혁명학원  
의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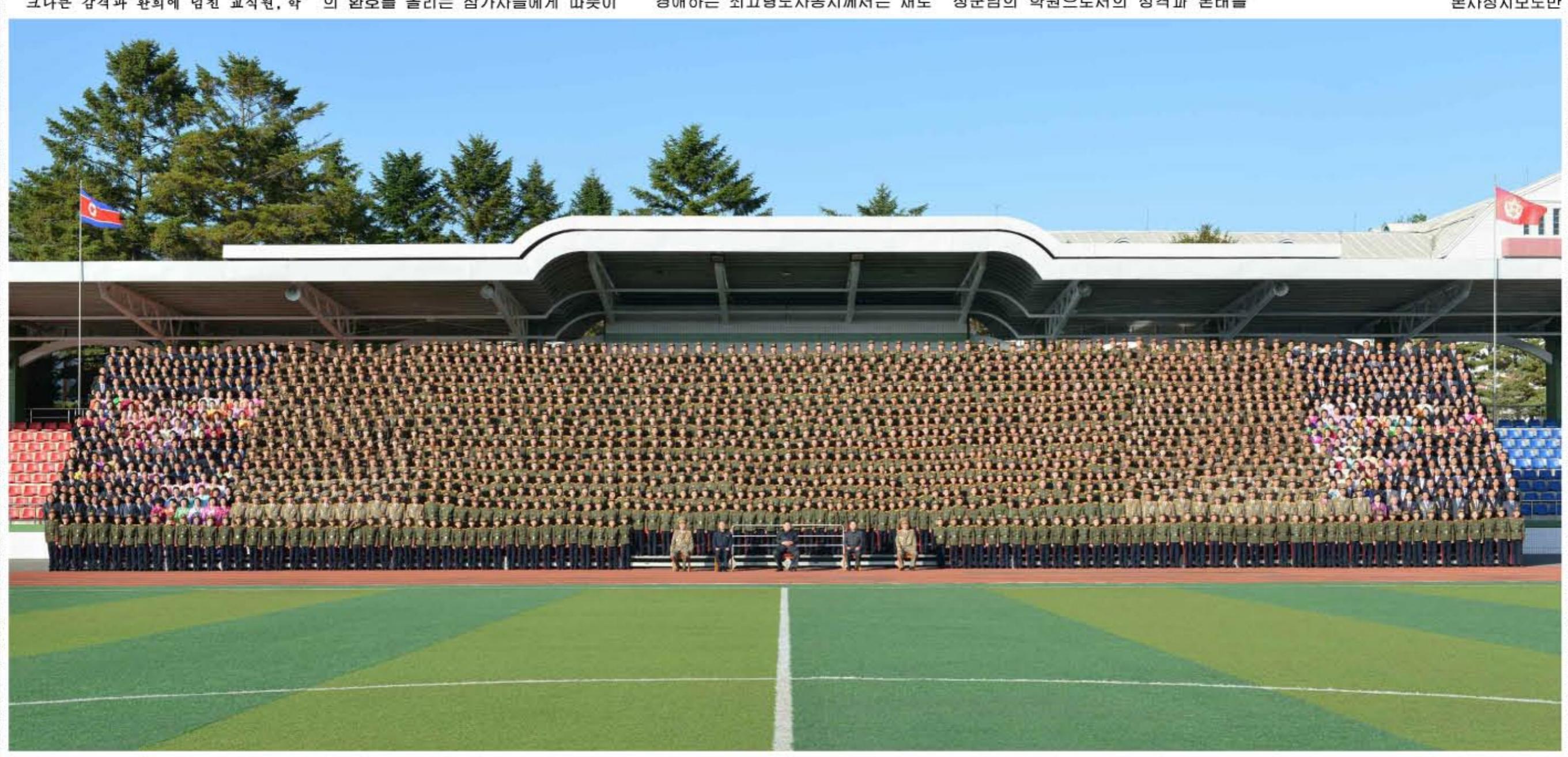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앞으로도  
만경대의 혁명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사회주  
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루하기 위한 성스  
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핵심적역할을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세운 혁명사적관과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인 교육환경, 과학교육설비들을  
훌륭히 갖춘 여러 강의실들, 종합체육관,  
수영관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교육  
실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태여나고 강화  
발전되여온 만경대혁명학원이 지난  
70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학원, 위대한  
장군님의 학원으로서의 성격과 본래를



#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보고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결친 휘황한 전로파와 온 나라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자는 격통적인 시기에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전당, 세상제일의 배움터로 긍지높은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이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혁명학원들이 걸어온 70년의 영광님천행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후대사랑속에서 만경대의 협통, 백두의 협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혁심풀간들을 억세게 키워내며 당의 혁명가유자녀교육사상과 정책을 충직하게 발달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부 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 태종수동지, 항일혁명투사들인 김철만동지, 리영숙동지,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일군, 교직원, 학생들, 출입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보고대회가 12일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당과 수령의 손길아래 헤어나고 강화방전되어 온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을 세계에 다시 없는 김일성, 김정일혁명학원으로 빛내여주시고 학원창립일을 상대히 기념하도록 대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태양상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가유자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만경대의 협통, 백두의 협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혁심풀간이 되자!» 등의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부 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 태종수동지, 항일혁명투사들인 김철만동지, 리영숙동지,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일군, 교직원, 학생들, 출입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박광호동지가 전달하였다.

기념보고를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태어나고 강화발전되어 온 명실공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혁명학원이며 혁명가유자녀들의 영현한 사랑의 품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혁명가유자녀 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파 빛나는 전통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혁명학원을 세울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소 살판목을 헤치시며 학원터전을 잡아주시고 의지가져 없이 해매이던 혁명가유자녀들을 다 찾아오도록 하시였으며 주체 36(1947)년 10월 12일 만경대 혁명학원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만경대 혁명학원의 창립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유자녀교육사상과 항일혁명사들에 대한 혁명적의리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나라에서 정규적인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새 력사를 펼친 뜻깊은 사변이였다.

혁명생애의 전기간 혁명가유자녀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실혈파로 고를

다 바치시며 주체의 협통을 굳건히 이어놓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업적이였다.

우리 당의 혁명가유자녀교육역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반드시 향일 아동단원들을 보살펴주시던 그 사랑으로 학원원아들을 주체혁명의 바통을 이어갈 믿음직하고 훌륭한 기둥간들을 키워주신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혁명실태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늘 함께 있고싶어 하는 원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경대 혁명학원에 어버이수령님의 풍상을 높이 모시도록 하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직 수령님만 믿고 따르는 신념의 기둥을 얹세계 세워주시였다.

참으로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혁명가유자녀들을 한 품에 암아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제일친위대, 총대와 함께 한생을 빛내이던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주신 그 사랑과 온정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위대한 전설로 세세년년 길이 전해질것이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 원수님께서는 70년전 어버이수령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식장을 헤치시면서 혁명적 수령판이 되고자 헌신하신 혁명가유자녀 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을 헤치시면서 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한 명도밑에 날마다 힘들고 힘든 혁명초소에서 헌신하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당의 명도를 가장 충직하게, 가장 성실하게 받들어나가는 맨 앞장에는 언제나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로 억세게 털어잡은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출입생들이 서있었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출입생들은 평온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잊지 않고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위치와 당시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혁명초소에서 헌신하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65돐을 맞으며 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서 한

새겨주시였다.

혁명가유자녀교육을 선군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학원을 당의 학원으로, 원아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명도와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혁명학원교정의 밝은 불빛은 순간도 꺼질줄 몰랐고 원아들은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려운것없이 마음껏 배우며 조국의 미래를 떠나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학원창립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력사적서 한족을 보내주시고 창립 60돐을 맞아 혁명학원출입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신 출입증과 새로 제정한 출입휘장을 수여하도록 은정깊은 사랑도 베풀어주시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명도와 강침한 보살펴심속에서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지난 70년동안 원아들을 만경대의 아들딸, 백두산의 아들딸들로 훌륭히 키워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출입생들은 교직원, 학생들은 학원이

최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할 제일친위,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라고 불러주시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은 우리모두가 영원히 안겨살 친어버이의 품,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명도와 강침한 보살펴심속에서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지난 70년동안 원아들을 만경대의 아들딸, 백두산의 아들딸들로 훌륭히 키워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명도와 강침한 보살펴심속에서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지난 70년동안 원아들을 만경대의 아들딸, 백두산의 아들딸들로 훌륭히 키워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출입생들은 평온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잊지 않고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위치와 당시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혁명초소에서 헌신하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65돐을 맞으며 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서 한족을 보내주시고 혁명가유자녀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65돐을 맞으며 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서 한족을 보내주시고 혁명가유자녀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출입생들을 평온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잊지 않고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위치와 당시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혁명초소에서 헌신하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당의 명도를 가장 충직하게, 가장 성실하게 받들어나가는 맨 앞장에는 언제나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로 억세게 털어잡은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출입생들이 서있었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출입생들은 평온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잊지 않고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위치와 당시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혁명초소에서 헌신하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우리 혁명부역의 현대화된 무장장비들에도, 세계를 경란시키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지하핵시험의 완전성공을 비롯하여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일어나는 경기적인 기적과 변혁들에도 절세위인들이 풀밀의 업적을 걸이 빛내여온다.

보고자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키워낸 출입생들과 같이 당의 위업으로 끌끌이 충실히 혁심풀간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혁명은 혁명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뚫고 사회주의의 기초돌이승승장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혁명부역의 현대화된 무장장비들에도, 세계를 경란시키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지하핵시험의 완전성공을 비롯하여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일어나는 경기적인 기적과 변혁들에도 절세위인들이 풀밀의 업적을 걸이 빛내여온다.

보고자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키워낸 출입생들과 같이 당의 위업으로 끌끌이 충실히 혁심풀간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혁명은 혁명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뚫고 사회주의의 기초돌이승승장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3 면 으로 계 속

# 축하문

##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넘쳐나는 혁명가유자녀들의 행복의 보금자리,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앞날의 혁심풀간들이 품을 하게 자라나는 세상제일의 배움터인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온 나라 천만민족의 열렬한 축복에 일흔번째 창립일을 맞이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속에서 최후승리의 뼈여미가 한껏 빛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창립 일흔돐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출입생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김일성, 김정일 혁명학원이며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의 피줄기로 헌세계 이어나갈 혁심풀간들을 키워내는 밑을 깔은 원종장이다.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후대관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주제 36(1947)년 10월 12일 항일혁명사들의 아들들을 맡아키우는 만경대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몸소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었으며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물걸트로 필지휘관후비들을 훌륭히 육성해내도록 현명하게 명도하시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원아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조선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혁명정도의 전기한 원아들에게 대해 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며 혁명학원들을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원아들의 요람, 혁명가유자녀 교육의 전당으로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지중지 보살피시던 원아들을 귀중한 품어안은 우리 당은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에서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주체혁명의 기둥들을 들통히 키워낼데 대한 중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성지에 터를 닦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너성영웅 김봉수동지의 육친의 정에 떠받들려 자기의 탄생을 선보인 때로부터 지난 70년동안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은 당파 수령에게 끌없이 충직한 결실하고 미더운 혁심풀간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며 혁명위업에 승의 스승스러운 력사에 자랑스러운 행로를 이로새기었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과 출입생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되고 전쟁의 불구름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선열들의 충실히의 전통과 수령경사용위의 산모법을 따라배워 승리와 영광의 연대를마다 당파 수령을 빙 앞장에서 견결히 보여왔다.

혁명학원 원아들은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하는 당의 이들땅에 학원에 정중히 모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통상과 존귀하심을 영상을 항상 우러르고 혁명의 높은 풋파워의 불은 정기신, 교정에 깊은 하늘같은 사랑의 역사 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열렬한 애국충정과 투철한 혁명신념을 억세게 더지였다.

혁명학원 교원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혁명가유자녀교육사상과 우리 당의 군사교육혁명방침을 충실히 반들고 혁명의 혁심풀간들과 인민군대의 후비간부들을 키워내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쟁조하였다.

혁명학원들은 정치사상과 교육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전반적인 무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종별, 학과 별 교수의 당정책 회수준을 높이고 전문분과 대학원의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 학생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당이 준 혁명과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화된 신자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하였다.

혁명학원 교직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진취적인 사업기풍으로 모든 강설들을 다기능하고 교수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용융실천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특색있는 직판물들과 조작형, 자동형, 느낌형 실습기체들을 창설도입하여 교육조건과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사랑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혁명학원들에게 나에게는 백두산훈련열풍과 강철

같은 군기학원의 불바람속에서 교원들과 지휘관들은 군사과목교육과 훈련을 실속있게 집행하고 전연부대참관과 병사행사를 비롯한 실전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군인기질을 체질화하고 기초군사지식과 부대지휘 판리능력을 소유한 평생한 지휘관후비들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교직원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귀중한 삶불이들을 알아 키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고 친부모, 친형제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어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가 빙울려지게 하였다.

온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혁명의 피줄기,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온 영광의 날짜에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은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을 수여받고 3중3대 혁명붉은기기를 정취하였으며 김일성청년영에 상과 김정일청년영에 상, 김일성소년영에 상과 김정일소년영에 상수상자들을 국제수학을 펼쳐 풍요로운 전통을 발전시켜 혁명인재 육성사업을 펼쳐야 한다.

만경대 혁명학원에서는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위상에 맞게 기초군사교육을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전행하고 당의 혼련혁명 5대방침을 철저히 관찰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무자비하게 소멸할 수 있는 총알처럼 땅땅 어운 알찬 혁명군대지휘성 원우비들을 키워내야 한다.

강반석 혁명학원에서는 군사과목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내밀면서 경제학과목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학생들이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의 전구 미디에서 혁심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더운 혁명학원, 당의 참된 땅들로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혁명유산인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을 키워내는 혁명학원에서 학생들은 당에 준 혁명과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화된 신자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어낸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혁님으로 높이 우러러보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따스한 체온과 체워준 것은 하늘같은 사랑을 키워내는 혁명학원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는 참다운 혁명가

혹성의 전당으로 세세년년 빛내여나가야 한다.

혁명학원에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시의 유일적 혁명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위대성 교양과 김정일에 국주의 교양을 비롯한 필수 5대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비쳐 써우는 신념과 의의의 강자, 불굴의 투사들로 억세하게 부르며 사회주의 강국을 양적 같이 떠메고 나갈 맹장형의 군사지휘관, 유능한 혁명인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혁명학원에서는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앞둔 천에 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항상 격동상태를 겪지하고 싸움준비,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학원안에 강철같은 군기와 정규화적면모를 확립하여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밤씨 산기공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교직원들은 혁명학원들을 전국의 본보기 단위로 만들에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순간의 차만파답보도 없이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교수의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자체 실정에 맞는 원격교육, 면속교육체계를 발전시켜 혁명인재 육성사업을 훌륭히 펼쳐야 한다.

만경대 혁명학원에서는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위상에 맞게 기초군사교육을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전행하고 당의 혼련혁명 5대방침을 철저히 관찰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무자비하게 소멸할 수 있는 총알처럼 땅땅 어운 알찬 혁명군대지휘성 원우비들을 키워내야 한다.

강반석 혁명학원에서는 군사과목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내밀면서 경제학과목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학생들이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의 전구 미디에서 혁심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더운 혁명학원, 당의 참된 땅들로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평가한다.

혁명학원 교원들과 일군들은 최고사령관의 아들딸, 강성조선의 기동감들을 키워내는 남다른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수교양사업과 자질향상, 혁명화회에서 온 나라 교육일군들의 본보기가 되며 원아들을 충실히게 자례우는 밀거름이 되고 뿌려가되어야 한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학생들은 위대한 원수님들과 우리 당의 크나큰 밑을 기대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학원교가를

썩썩하게 부르며 사회주의 강국을 양적 같이 떠메고 나갈 맹장형의 군사지휘관, 유능한 혁명인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혁명학원에서는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앞둔 천에 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항상 격동상태를 겪지하고 싸움준비,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학원안에 강철같은 군기와 정규화적면모를 확립하여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밤씨 산기공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 일군들은 당정치사업과 청년사업에서 전군적인 본보기로 창조하기 위한 훈련화를 일으켜 학원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최정부에대부, 군사교육부문의 모범단위로 꾸리며 우리 당의 사랑과 배려가 원아들에게 드롭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혁명학원 출입생들은 만경대의 아들딸, 백두산의 아들딸답게 수령보위, 혁명보위의 제일근위병이 되고 당 제7차대회 결정판월을 위한 총돌격전의 제일기수가 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령혁명가, 참다운 애국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충정과 보답의 한결만을 걸어온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전당, 조선로동당의 계속혁명사상과 후대사령, 미래사랑이 웅축된 혁명학원들에서 원수들을 전롭게 하는 쇠소나는 투사들, 믿음직한 혁심풀간후비들이 무력무력 자라나고 있기에 우리 혁령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고 주제조선의 강대성은 백배해지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출입생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만경대의 냇을 배우며 자라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혁명전사답게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스승스러운 투쟁에서 혁심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주제 106 (2017) 년 10월 11일

#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보고대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2면에서 계속

참으로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에는 철세위인들의 혁명가유자녀교육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뼈여미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의리로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의 역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철세위인들의 혁명학원에서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정도업적을 겸결히 응호하고 수고하였으며 결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혁명가유자녀교육증시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판절함으로써 학원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학원으로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대원수님과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회의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혁명원으로써 혁명학원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혁명학원 김정일주체의회 요구에

맞게 혁명학



#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올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자

## 가을걷이는 단순한 영농전투가 아니다

안주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 판결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안주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가을이 단순하게 전투작전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공정별 작업들이 날알털현상을 험하게 막을 수 있게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만 보아도 벼가을이 단순한 영농전투가 아니라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수수권이라는 관점에서 현장기술지도를 바탕으로 일군들은 해나가고 있는 시험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세를 엿볼 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에서 서자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울릉 시에서는 벼가을을 지난해보다 대체 먼저 시작하면서도 날알털기는 열흘정도 앞당겨 결속할 목표를 세웠다. 이런 조건에 맞게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일군 속도를 확보하면서도 귀중한 날알을 허설없이 거두어들여 이기 위한 대책들을 예전성 있게 세워나갔다.

포전에서의 날알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짜고든 작전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해 일부 단위들에서의 벼

가을걷이정형을 공정별로 따져보는 파장에 일군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높아진 벼가을속도에 날알털기

가 미처 따라서 못한 것은 물

론 가을하기 전의 토전작황과

날알털기 후의 정보보장

수확량이 일정하게 차이났던 것이다. 결코

마음의 신들레를 바탕 조이고

분발하여 일군들은 밭이 많고

포전들을 밟았고 필요한 대

책들을 제때에 세워나갔다.

우선 모든 농장들에서 벼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포

전에 벼어놓은 벼들이 충분히

마른 조건에서 단으로 묵도록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벼단을 운반하는 경우 광

간이 생긴 것들은 풀이 좀 들어

도 무조건 다시 묵은 다음 나르

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특히

젖은 벼에 비하여 마른 것은

탈곡기에 걸리는 부하가 적은

반면에 날알털기 속도를 높였던 것이다. 더 위기 찾은 벼를

은 탈곡기에서도 이상이 잘 떨

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날알이

특히 기속에 벼어나기는 후파를

초래하였다.

일군들은 한걸음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원인은 해당 단위들에서 벼가을속도

를 높이는데 치중하면서 운반

과정에 날알이 허설될수록

운반 속도를 높여나가는 대로

중요하게는 일군들이

벼가을이 단순한 영농공정

이 아니라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

수수권이라는 관점에서 시적인

말의 품성을 수시로 둘며

벼를 찾아온 현장들을 수시로

찾아온 것이다.

이 성과는 올해 농사경

속을 위한 혁신적인 방도

를 찾아 완강하게 실천해

나간 농장일군들의 진취적

일본세가 약아온 결

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

문, 모든 단위에서 자

력갱생, 자급자족의 구

호를 높이 고기 대화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제회를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올해 농장에서는 벼가을을 10일, 날알털기는 20일동안에 끝낼 목표를 세웠다. 물론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이 달려온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농장일에 맡겨진 알곡생산과 제작은 국가의 전투명령으로 간주한 이곳 일군들은 수행방도를 찾기 위해 지혜를 학처나갔다.

그 과정에 이들은 드락포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 일정에 일정한 알곡가을을 찾을 것이다.

특히 일군들이 명언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깊이 학습한 힘에

초하여 대중에 들어가 일기

로 농작물의 존엄과 혁신

을 확보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태빈보수직장에서 대중의 창발성을 적극 발동하여 태빈보수를 제때에 잘하고 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태빈보수직장에서—

한국농사기술이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전진되도록 현장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지 못한데 있었다.

여기서 일군들은 이런 교훈을 찾았다. 아무리 좋은 토전작황과 결속할수 있게 되었다.

농업전선의 담당자로서의 사업을 깊이 자각하고 날알털기 과정에 제거될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게 되었다.

마음의 신들레를 바탕 조이고

분발하여 일군들은 밭이 많고

포전들을 밟았고 필요한 대

책들을 제때에 세워나갔다.

그뿐 아니라 드락포르의 동력을 이용하여 톱밖의 사정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탈곡기를

자동으로 탈곡기를 신속히 따라세울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한군들에 있는 벼종합랄곡

기체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갖고 일군들은 저체없이 예전성 있는 작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각

농장들에서는 탈곡장을 벼단

들을 충분히 운반해 농사를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일

단 비가 몇으면 쌓아놓았던 벼

단들을 헤쳐놓아 슬기로 제거할

수 있게 멀리 떨어진 대책들을 세웠다. 그리하여 농지에 날알털기

를 예방하는 데에 날알털기

#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의 혼나발질로 여론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온 지구행성을 통제로 뒤흔들며 자주와 정의의 해이 침략과 폭제의 핵을 짓부시는 미중유의 세기적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 국제적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반미 최후결전을 당당히 선언한 우리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힘승의 기상은 강원과 전횡, 불의와 압제가 판을 치는 세계정치에 거대한 충격을 주며 인류의 새로운장을 열고 있다.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해온 어종이며 중들이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초강도제재압박》소통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이 운명적 대결에서 확실시되는 저들의 폐배와 비참한 물락에 대한 꽁포와 절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염연한 현실과 대세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미몽에 사로잡혀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질러대는 시라소나들이 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가가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을 내들고 마치 그것이 시시각각 더 옥 철에 회복되는 현 위기국면을 해소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듯이 떠들어대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있다.

그들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저들이 열심히 가담하고 있는 대조선《초강도제재압박》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해결책》이고 《북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제재압박은 대화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제재를 늘어놓다못해 나중에는 북이 전지한 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혼소리까지 훼내고 있다.

물론 좋든싫든 상전의 것이라면 그대로 되어야만 원의이다 하고 백악관주인의 호령이 라면 미친 지랄에도 박수를 쳐야 하는 신치지노록의 가공한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잘못 던진 말 한마디에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당기고 수천수만의 목숨이

왔다갔다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각에 트럼프와 같은 정신나간자들처럼 함부로 허비락을 놀려대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그 무슨 금언이라도 되는듯이 짜히면 입에 올리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은 말자체의 의미만 놓고 보아도 모순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퀘변의 퀘변이다.

대화가 서로 미주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상정된 문제를 토의하여 해결하기 위

한것이라면 제제와 압박은 강제적수단이나 힘으로 자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강도적행태이다.

대화의 기초가 존중이고 신뢰라면 제제와 압박의 기초는 적대이고 대결이다.

이렇듯 제제압박과 대화라는 상반되는

두 개념을 한바탕에 실어놓고 《행명》을

읊을하는 그자체가 소대가리에 말궁동이를 갖다붙이는 격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폐폐당이 《제재와 압박은 대화협상과 모순되지 않는다는》다니, 《제재와 압박은 북을 대화마당에 끌어내기 위 한것이니》라고 하면서 우기의 황불을 고하는 것은 땅속의 저령이거나 물결에 승천하기를 바리려는 것 만큼이나 가소로운것이 아닐수 없다.

언제 가도 이루어질수 없고 오히려 사태 해결에 장애만 조성할뿐인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에는 미국과 다른 소리를 네째야 할수도 없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새 마음 대로 나설수도 없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

지가 그대로 비껴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에는 새로운것이란 전혀 없으며 본질에 있어서 백악관의 늙다리미치왕이 나에 놓은 《최대의 압박과 판여》를 그대로 본딴 미국산 모조품뿐이다.

이미 실세한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 내》정책의 영장이고 번증이라고 할수 있는 트럼프미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판여》는 날로 강대해지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걸

집히길 고집해낸 군여지체으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단기간 내에 루에 있는 고강도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협상의 미명하에 온갖 회유와 기망,

정과 설득을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시켜 보려는 가장 포악하고 읊흉한 대조선적대

시정책이다.

역대 미행정부들이 내들었던 《강온전략》, 《제재와 당근》과 조급도 다를바 없고 양기식오만과 런던성의 국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역시 그들은 참으로 심각한 착오를 범하고 있다.

## 전쟁미치광이들이 부질없는 망동

미국의 트럼프정부가 우리의 역사상을 파괴하기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 한다. 기존핵무기보다 파괴력이 약하고 방사능방출량이 적은 소형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저들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타격의 학파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 던진 말 한마디에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당기고 수천수만의 목숨이

터져나온다.

우리는 이미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

험의 완전성공으로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 것

이 아니면 그것을 물리적힘으로 짓부시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제재압박을 건너기 어려워 손들고 나았

는 것은 결보기에 《대화》의 보자기를 쓸수

있지만 실지로는 항복이니 굽종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제재압

박》을 통한 《대화》란 강압적인 수단과 방

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굽복시켜 보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따른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참으로 심각한 착오를 범하고 있다.

물론 좋든싫든 상전의 것이라면 그대로 되어야만 원의이다 하고 백악관주인의 호령이 라면 미친 지랄에도 박수를 쳐야 하는 신치지노록의 가공한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잘못 던진 말 한마디에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당기고 수천수만의 목숨이

터져나온다.

우리 국가를 《완전파괴》하고 공화국북부인구를 절멸시키기 위한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도 끝까지 그 어떤 국가를 《유엔무대에》는 아니며 미국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문이 구에 놓여있다.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의 불꽃이 휙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2500만 인구의 절멸이라는 데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혼성의 밭이다.